

# 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에 '총력'

### 올해 37억여 원 투입...이달까지 1천130톤 수거 6개월간 페스티로폼으로 재활용품 35톤 생산해

여수시가 해양경관을 저해하며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37억여 원을 투입해 14개 읍면동의 해안가와 섬 주변에 2천200톤 수거를 목표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오는 26일부터 11월 말까지를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기동수거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거지점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동도, 해수욕장, 소호동둔다리 주변이다. 14개 읍면동에 1억 7천만원의 인건비 등을 교부해 집중호우나

조류에 따라 밀려드는 해양쓰레기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또한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통해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 26명을 두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전력을 쏟은 결과 지난 7월 중순까지 총 1천13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올해 6개월간 페스티로폼 8천 280㎡를 수거해 관내 시설에서 재활용품(양극) 35톤을 생산 판매해 세외 수입도 늘리고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



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보러 오시는 만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32억 원을 투입해 3천2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해양 환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선제적 홍보로 민원 최소화

### 전원주택사업·태양광 발전사업·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대상

광양시는 최근 전원주택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된다.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광양=심종섭기자

전원주택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홍보 부족, 개발사업 준공 후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해소하고자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 민원지적과,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 보성 미력면-한수원(주)보성강수력발전소 용정권역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추진 협약

보성군 미력면(면장 정삼룡)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성강수력발전소(소장 김영복)와 발전소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지역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1년 사업자 지원사업' 용정권역 어울마당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농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고, 체험·회의·교육 시설 등이 있는 미력면 용정리 일원에 위치한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에 보강토 옹벽설치공사로 자연재난 방지와 경관개선을 위해 실시 계획이며, 한수원(주) 보성강수력발전소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력면에서는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 주변 구조물 설치를 통하여 인근 영농인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삼룡 미력면장은 "보성군이 코로나19시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규모로 여행할 수 있는 '삼삼오오 보성여행지 10선'에 선정된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이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힐링·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 "런웨이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 순천시, 한중일 전통의상 패션쇼 시민 모델 공모

도시 순천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순천시 문화예술과(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3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imuh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모델은 8월 6일 최종 발표되어, 10월 8일 전통의상 패션쇼에 오르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한복, 정원에 물들다"라는 주제처럼 순천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면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한중일 전통의상 패션쇼 이외에도 미래융합 페스티벌, 그림책 웹툰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주간'을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유전체 개량사업으로 고흥한우 명품화

### 고흥군,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구축 시범사업 호응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흥한우 유전체 개량사업이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향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한우 유전체 개량사업은 고흥한우연구회(회장 송유중) 회원 15농가 623두를 대상으로 (사)한국종축개량협회가 시료로 채취한 모근(毛根) 등의 DNA 분석과 도체 형질, 체형 및 번식지수 등을 통해 한우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능력(육종가)을 평가했다.

또한, 한우 육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농장을 방문해 '농가 암소 개체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결과

표'를 이용하여 암소 개체별 유전체 유전능력을 설명하고 선발·도태를 위한 자료 활용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번에 농가 현장컨설팅을 받은 송유중 고흥한우연구회 회장은 "고흥한우는 농가들의 꾸준한 개량으로 도체중(屠體重)과 등심단면적에서 도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어 커다란 자부심이다"고 말하며, "고흥한우 유전체 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능력을 번식우의 선발과 도태 선정 등을 조기에 명확하게 결정하여 가족개량 세대기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